

■ 보성 꿀벌연구회

꿀벌이 인간에게 주는 '천연선물'



꿀벌은 1kg의 꿀을 만들기 위해 5,600만 송이 꽃을 찾아 4만km를 여행한다



지구에서 생산되는 전체 작물의 3분의 1이 곤충의 수분(受粉) 활동으로 열매를 생산하고, 그 중 80%가 '이것'을 통해 이뤄진다.

'보성 꿀벌연구회'(회장 안시욱·70)는 올해 1월 40~70대 연령층의 보성지역 양봉인 15명이 모여 결성한 모임이다.

양봉인들 모여 양봉기술·밀원지 정보 교류

연구회는 지난달 17·18일에 보성 유스호텔에서 300여 명의 양봉인이 참여한 가운데 '제 23차 꿀벌사랑 동호회 및 농업인연구회 전국모임'을 개최하기도 했다.

양봉인들은 요즘이 가장 바쁜철이다. 이달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 유채꽃, 아카시아꽃, 때죽나무, 밤꽃 등 온갖 밀원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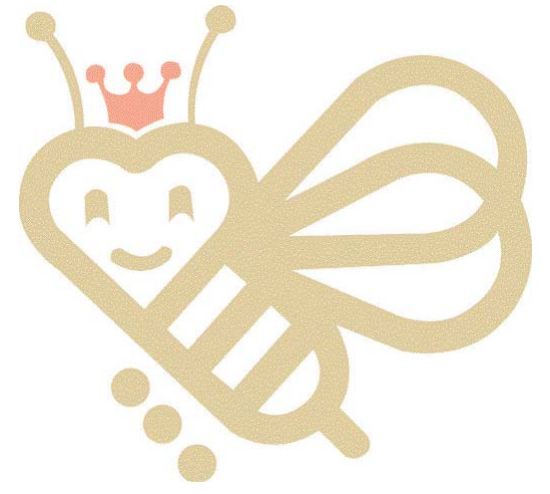


전양현 보성 꿀벌연구회 고문인 보성군 득량면 에당리에서 밀원지를 찾아 이동하기 전 벌통을 열고 꿀벌들이 꿀을 저장하게 되는 벌집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17·18일 보성 유스호텔에서 열린 '영농신기술 교육 및 꿀벌사랑 동호회 전국모임'에 참가한 양봉인들.

'꿀'을 따는 사람들



찰이 일게 된다. 벌꿀의 행동반경이 2km에 달해 밀원이 좋은 장소에서는 상호간 영역이 겹치게 마련이다.

△꿀벌을 직접 길러보자= 취미로 양봉을 하려면 우선 3~4월에 전문 양봉인에게서 벌통 1~2개를 분양받는 것이 좋다.

취미 삼아 시작... 꿀벌들과 달콤한 여행

주변에 산이 있으면 도시에서도 양봉이 가능하다. 그러나 벌통이 차량 등에 떨어져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다.

꿀벌(일벌)이 1kg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5천600만 송이의 꽃을 찾으며 지구를 한바퀴 도는 거리만큼인 4만km를 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직장생활을 하며 취미로 벌통 2통을 치다가 퇴직 후 20통으로 늘린 지탄열(60)씨는 "벌통 옆에 있으면 벌들이 달려들어 금방 쏘 것 같아도 사랑스런 벌이라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꿀벌사회는 여왕벌 1마리와 이를 추종하는 수만 마리의 일벌이 공생하는 군집사회이다. 여왕벌은 공중에서 비행하며 5~15마리의 수벌과 교미해 정충을 저장함에 보관해 두었다가 3년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알을 낳게 된다.

유정란은 일벌과 여왕벌이 되고, 무정란은 소수의 씨내리꿀 수벌을 만든다. 수벌은 일벌보다 체구가 2~3배는 크지만 스스로 꿀을 채취하는 능력도 없고 오로지 번식용으로 쓰이는데 그나마 경쟁이 심해 여왕벌과 교미할 수 있는 행운이는 0.1%에 불과하다.

△벌꿀의 다양한 상품화 노력= 연구회는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품질 좋은 꿀 생산은 물론 ▲여왕벌을 만드는 종봉(種蜂) ▲프로폴리스(PROPOLIS)-꽃가루 상품화 ▲봉독·봉침 ▲수벌 에

벌레 상품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식물의 진액을 수집해 타액 등으로 가공한 물질로 면역력 강화 천연 항생물질이다.

벌집에 있는 벌들은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는 축산분야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다. 어린 돼지 등에게 특정부위에 벌집을 놓아주면 질병에 강해진다.

연구회 회원들은 '꿀벌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천연식품'이라 예찬하고 로열젤리와 프로폴리스 등의 효능에 대한 믿음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있다.

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는 문수현(50)씨는 '가족들에게 좋은 꿀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30여 년 전부터 취미로 소규모의 양봉을 하다가 최근 들어 전업으로 하게 됐다.

귀농 관심있는 젊은이들 도전해볼 만

벌꿀과 프로폴리스에 대한 효능을 직접 확인한데다 더욱이 농업 소득이 된다 싶었기 때문이다. 현재 차다래(1천여평)와 함께 양봉 100통을 하고 있는 문씨의 전문 분야는 종자벌인 여왕벌을 인공수정시켜 만드는 종봉(種蜂)사업이다.

회원 박창연(53)씨는 "보성에 아카시아, 유채 등 대량의 밀원이 없어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해 지역의 밀원조성이 절실하다"며 "전남도와 보성군이 적극 나서 벌꿀 물류창고 신축을 비롯해 포장재 등 브랜드와 마케팅을 지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 양봉규모는 전국에서 치는 벌통 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이중 보성군이 30%에 달한다.

연구회 고문을 맡고 있는 전양현(55)씨는 "양봉은 귀농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도 도전해볼 만하다"며 "1천만원을 가지고 귀농해 종봉(種蜂)에 반을, 나머지 반은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6개월 일하고 그 해에 생산한 벌꿀판매로 3배는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보성=선상근기자 su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a large banner for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The solution for passing the 7th and 9th grade civil service exams is at Hanbit). It includes details about exam preparation, a list of subje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wangju National Public Administration Examination Preparation Institute (광주 박문각 행정고시 학원). It features a large banner for '제5회 국가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 (5th National Publicly Recognized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Management Inspector) and '국비환급 100%' (100% National Grant Refund). It lists exam dates and subjects.

Advertisement for Gyeongjeon Mega Police Academy (경전 메가경찰학원). It features a large banner for '경찰 개강 5월 1일' (Police Exam Opening May 1st) and '전국 최강의 교수진' (Nation's Top Professors). It lists exam dates, subjects, and contact information.